

## 제26장 토론문

발제자가 제안한 XAI와 LLM의 결합을 통해 복잡한 지리 공간 데이터를 대중이 접근하기 쉽도록 만드는 방안은 지식의 민주화 측면에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 대한 서사를 어떤 주체가, 어떠한 합의 과정을 거쳐 생산하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LLM이 생성하는 정보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특히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지식의 민주화는 인민에게 지식을 개방하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생산에 있어서도 인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제27장 토론문

### 1.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심상지리'는 GeoAI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가시화될 수 있는가?

발제자가 제기한 심상지리의 가시화에 대해 NLP와 지식 그래프를 결합해 각 장소와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 속 공간은 그 물리적 좌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각 장소와 문학 속 인물이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히 그 물리적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는 것보다는 심상지리의 네트워크를 위상학적 지도로 나타내면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한국 근현대 문학의 공간(경성, 만주, 고향 등)을 GeoAI로 분석할 때, 역사적 기억과 감정의 층위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역사적 기억과 감정의 층위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지리학적인 인물의 궤적 추적과 감성 분석을 결합하는 방법론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한국 근현대 문학의 공간은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GeoAI를 활용해 문학 작품 내 장소를 단순히 지명 출현 빈도나 그 위치를 지도화하는 것을 넘어, 작가 또는 작품 내 인물의 시간에 따른 이동 궤적을 따라 각 장소 노드에 연도별로 감성 점수를 부여해 시각화하면 그 역사적 배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제28장 토론문

현재의 GeoAI는 공간의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패턴을 정밀하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역사 과정이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공감한다. 본 토론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더 많이 입력하면

해결될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정량적 알고리즘과 정성적 역사 경험 간의 본질적인 충돌로 바라보고, GeoAI가 지닌 방법론적 한계를 짚어보며 발제자의 문제의식을 확장해보고자 한다.

역사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정성적이지만, 이것을 정량적인 데이터로 바꾸면, 그 맥락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 발제자가 예를 들었던 식민지 경험이나 산업화 과정, 정책 변화 등은 단순히 수치의 변화로 치환될 수 없다. 이는 복잡한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 폭력과 억압의 경험이 포함되어 정성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GeoAI가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 공간의 역사성을 알고리즘의 변수로 바꾸는 순간, 그 공간에 얽힌 역사적 맥락과 권력의 의도와 같은 인문지리학적 의미는 지워져버리고 만다.

또한, Geo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공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찾아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왜 그러한 패턴 또는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causation)를 설명할 수는 없다. 알고리즘은 특정 지역의 흥망성쇠를 모델링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국가권력의 공간적 배제가 있었는지, 또는 자본주의적 경제 침체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기계는 역사적 불평등이 형성된 구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결과물만을 표면적으로 분석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GeoAI가 지표면에 남겨진 역사성을 완벽하게 재현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 GeoAI의 역할은 역사 지리 사료 속에서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는 보조 도구로 남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견한 결과를 통해 권력과 억압 등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비판적 서사로 엮어내는 작업은 기계가 아닌 지리학자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